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hips to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Emotionality

권연희(Yeon Hee Kwon)¹⁾

이종희(Jong Hee Lee)²⁾

ABSTRACT

The social behaviors of 177(84 girls, 93 boys) 5-6 year olds were rated by the SCBE teacher questionnaire. Mothers reported on their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on children's emotionality by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girls' emotionality was related to maternal punitive responses and their withdrawn behaviors. Maternal emotion-focused responses were associated with boys' social behaviors. Maternal distress reactions were correlated with girls' prosocial behaviors; maternal punitive responses were related to girls' prosocial and withdrawn behaviors. Maternal emotion-focused responses were associated with girls' aggressive behaviors.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girls' emotionality was not related to their withdrawn behaviors when maternal punitive responses were taken into account.

Key Words :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s), 정서성(emotionality),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mother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 서 론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배운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아동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등 발달적 어려움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즉,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은 청소년기까지

¹⁾ 동덕여자대학교 BK21 아동교육연구단 박사 후 연구원

²⁾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BK21 참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eon Hee Kwon, Child Education & Develop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k-dong, Sungbuk-gu, Seoul 136-714, Korea
E-mail : imkyh100@hanafos.com

지속되어 낮은 학업 수행·학업 중퇴와 같은 학교 관련 문제나, 비행·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 왔으며, 최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어린 아동의 이후 학교 준비나 적응의 기초로서 사회 정서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강조되었다(Raver & Zigler, 1997).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연구들로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최근의 추세에 따라(Campos, Campos, & Barrett, 1989; Lewis & Saarni, 1985; Thompson, 1994), 기질의 정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성을 사회적 행동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이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위축된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다. 이러한 아동들은 성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또래 집단에도 잘 수용되지 못하였다(권연희, 2002;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199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Rubin, Hymel, Mills, & Rose-Krasnor, 1991). Murphy와 Eisenberg (1996)는 아동의 정서적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Rothbart와 동료들(1994) 역시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 죄의식, 도움 추구, 부정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 특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Rubin 등(1991)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만족 지연이나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정서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래 집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Eisenberg와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지위 간의 관계가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의 정서성과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도현심, 1994; Cohn, 1991; Hyde, 1986; LaFreniere, Masataka, Butovskaya, Chen, Dessen, Atwanger, Schreiner, Montiroso, & Frigerio, 2002)을 고려할 때,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패턴이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정서성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의 정서성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관련 특징이 어떻게 사회화되고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Garner, Jones, & Miner, 1994). Parke(1994)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 반응을 해석하고 표현 방식을 인식하게 되므로, 최초의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 정서에 보이는 반응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Gottman, Katz와 Hooven(1996)은 예상과는 달리 일반적인 부모 양육 실체가 아동의 정서 관련 반응에 강한 예언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정서 사회화에 대해서는 일반적 접근보다 좀더 복잡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의 사회 정서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일반적인 부모 양육 행동과의 관계보다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좀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Garner 등(1994)은 취학 전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시키고, 정서 유발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각성을 높이거나 확대하는 부모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 관련 사건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Hoffman, 1983). Buck(1984)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시 아동의 부정적 정서 발생과 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아동은 적응적 정서 사회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다른 상호작용 맥락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Roberts와 Strayer(1987)는 부모가 유아의 분노에 문제 중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Eisenberg, Fabes, Carlo과 Karbon(1992)은 3-4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그 정서나 상황이 별일 아닌 것으로 다루는 것과 같은 부모의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sponses)은 아동의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고,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의 부적절한 대처 행동과 관련되는 반면, 문제 중심 및 정서 중심 반응과 정서 표현 격려는 아동의 인기도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몇몇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성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처벌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일 뿐 아니라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은 회피 대처 행동 및 낮은 사회적 기능과 관계되는 반면, 문제 중심적 반응은 여아의 사회적 행동에만 강력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Eisenberg, Fabes, Carlo, Speer, Switzer, Karbon과 Troyer(1993)도 어머니의 문제 중심 반응이 여아의 위로하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 두 변인간의 관계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Lytton(1990)은 아동의 성향적 특질이 부모로부터 여러 유형의 사회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계되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Sameroff(1975)는 부모의 정서 관련 반응과 아동의 특성은 상호작용적 또는 전이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Rubin, Nelson, Hastings와 Asendorff(1999)는 2세 자녀의 수줍음에 대한 부모 지각이 2년 뒤 그들 자녀의 독립성을 덜 격려하는 부모 행동을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어린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 특정한 부모 행동을 야기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아동의 정서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isenberg와 Fabes(1994)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가 보이는 부

정적 정서에 대해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및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반응을 많이 보였다. Eisenberg, Fabes, Sheppard, Guthrie, Murphy와 Reiser(1999)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간의 관계가 양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6-8세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은 8-10세 때 이들 부모의 처벌적 반응을 예언하였고, 8-10세 때 부모의 처벌적 반응은 10-12세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예언하여, 이 두 변인의 양방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Belsky, Fish와 Isabella(1991)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게 변화한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반응적이고 민감하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조화롭지 않거나 비반응적인 행동은 덜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특성과 상호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Rubin, Hastings, Chen, Stewart와 McNichol(1998)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들이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 지배 행동을 많이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 유의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지, 즉,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같은 관계 패턴을 아동의 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성이 어머니 반응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과정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소수 연구들은 어머니 반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거나 어머니나 아동의 기질 또는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강희연·강문희, 1999; 김희정, 1994; 한유미·손경화, 2004), 정서 사회화의 측면에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더욱이 아동의 정서적 특성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이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를 남, 여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정서 사회화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어머니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 6세 아동 177명(남아 93명, 여아 84명)과 그들의 어머니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유치원 5곳에서 유치반 7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소속된 아동 전원에게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한 후, 분석가능한 질문지를 제출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었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6세 2개월(연령 범위 67개월~81개월)로, 대부분의 아동(160명, 90.4%)이 한 명 이상의 형제를 두고 있었다. 이들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7.9세, 어머니가 35.2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대부분의 아버지(162명, 91.5%)와 어머니(135명, 76.3%)가 초대졸 이상이었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49.2%(8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38명, 21.5%), 전문직(32명, 18.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65%(11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직(27명, 15.3%), 사무직(20명, 11.3%)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57.6%(102가구)가 300만원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분포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행동 측정 도구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LaFreniere

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간편형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친사회적 행동(예 :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위축된 행동(예 :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공격적 행동(예 : 다른 아동을 때리고, 물거나 찬다)의 세 가지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아동이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유치원에서 해당 하위 영역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사 응답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긍정-친사회적 행동이 .88, 위축된 행동이 .86, 공격적 행동이 .88이었다.

2) 아동의 정서성 측정 도구

아동의 정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othbart(1996)의 아동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 CBQ) 중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된 일부 문항을 번안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어머니용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성 질문지는 유치원 시기의 아동이 대부분 경험하는 분노/좌절 및 슬픔 정서와 관련하여 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정서성 18문항에 대한 어머니 응답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이었다.

3)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측정 도구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Eisenberg, Fabes와 Bernzweig(1990)의 CCNE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유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12가지 상황(예: 병원에서 주사 맞기 싫어서 징징거리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감정 표현 격려, 정서 중심 반응, 문제 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의 총 6가지 반응 유형을 제시하여 그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3가지 상황(놀다가 자전거가 부서진 상황, 무서운 TV를 보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공원에서 놀이에 끼이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한 9가지 상황으로 CCNE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9가지 상황에서 보이는 6가지 유형별 반응 정도를 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평정한다. 어머니 반응 점수는 반응 유형별로 각 점수를 합산 한 뒤 상황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6가지 반응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래와 같다.

①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s) :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0이었다.

② 처벌적 반응(Punitive Responses) :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벌을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7이었다.

③ 감정 표현 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 :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이었다.

④ 정서 중심 반응(Emotion-Focused Responses) : 아동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반응하는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5이었다.

⑤ 문제 중심 반응(Problem-Focused Responses) : 아동의 스트레스에겐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6이었다.

⑥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sponses) : 상황의 심각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다루거나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0이었다.

3. 연구절차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과 같은 만 5, 6세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학급의 교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 전원에게 질문지를 배분하고 일주일 뒤 수거하였다. 210명의 아동 가정에 배분하여 183부가 회수되어 87%의 회수율을 보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급의 주교사에게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적 행동 질문지를 실시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

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적률 상관 계수 및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먼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아동의 정서성은 7점 만점에서 4점 정도의 평균을 보여 연구 대상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것과 같은 기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 유형이 7점 만점에서 평균 3.5점 정도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인 반면, 감정 중심 반응 및 문제 중심 반응과 같은 긍정적 반응 유형은 5점 정도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어머니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벌을 주

는 것과 같은 부정적 반응보다는 아동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은 긍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보통 정도로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였으며,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다루는 최소화 반응을 보통보다 약간 높게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은 6점 만점에 4.3 점 정도로 중간 보다 좀 더 높은 반면, 위축된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은 2.1~2.4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정서성,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정서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일부 하위 척도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중 처벌적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사회적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점수범위	전체(N=177)	남(n=93)	여(n=84)	t
		M(SD)	M(SD)	M(SD)	
정서성	1점~7점	4.04(.76)	4.12(.76)	3.95(.75)	1.49
어머니 반응					
스트레스 반응		3.45(.85)	3.57(.83)	3.32(.86)	1.95
처벌적 반응		3.51(.77)	3.62(.74)	3.38(.78)	2.12*
감정표현격려	1점~7점	4.06(.97)	4.02(1.00)	4.11(.93)	-.64
정서중심반응		5.20(.80)	5.18(.89)	5.22(.68)	-.32
문제중심반응		5.02(.86)	4.98(.86)	5.07(.87)	-.67
최소화반응		4.22(.86)	4.42(.87)	4.01(.80)	3.24**
사회적 행동					
긍정-친사회적 행동	1점~6점	4.33(.85)	4.10(.91)	4.59(.72)	-3.95***
위축된 행동		2.35(.87)	2.34(.85)	2.36(.90)	-.09
공격적 행동		2.07(.89)	2.33(.96)	1.77(.70)	4.48***

*p<.05 **p<.01 ***p<.001

반응과 최소화 반응은 남아 어머니(각 $M=3.62$; $M=4.42$)가 여아 어머니(각 $M=3.38$; $M=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 어머니보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더 많이 벌을 주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반응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여아($M=4.59$)가 남아($M=4.10$)보다 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남아($M=2.33$)는 여아($M=1.77$)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정되었다. 따라서 이후 상관 분석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성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별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아의 정서성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r=.27, p<.05$)을 보여주었다. 즉,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잘 우는 것과 같은 정서적 특성을 지닌 여아일수록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벌을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였다. 반면, 남아의 정서성과 이

<표 2> 아동의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 적률 상관 계수

어머니반응	아동의정서성	
	남(n=93)	여(n=84)
스트레스 반응	.01	.16
처벌적 반응	.13	.27*
감정 표현 격려	-.02	.08
정서 중심 반응	.08	.01
문제 중심 반응	.11	-.14
최소화 반응	.04	-.14

* $p<.05$

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남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평소 자녀의 정서성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별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아의 정서성은 위축된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r=.29, p<.05$)을 보여주었다. 즉,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슬퍼하는 정서적 특성을 지닌 여아일수록 교실에서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반면, 남아의 정서성의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아, 유치원에서 남아의 사회적 행동과 이들의 정서적 특성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표 3>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 적률 상관 계수

사회적 행동	아동의 정서성	
	남(n=93)	여(n=84)
긍정-친사회적 행동	-.05	-.07
위축된 행동	.13	.29*
공격적 행동	.04	-.11

* $p<.05$

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별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아

〈표 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 적률상관계수

사회적 행동 어머니반응	남(n=93)			여(n=84)		
	친사회적 행동	위축된 행동	공격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위축된 행동	공격적 행동
스트레스 반응	.06	.09	.03	-.23*	.08	-.02
치별적 반응	.12	.09	.12	-.21 ⁺	.22*	.07
감정 표현 격려	.03	-.03	-.13	.14	.00	-.08
정서 중심 반응	.19 ⁺	-.21*	-.22*	.14	.04	-.21 ⁺
문제 중심 반응	.03	-.10	-.08	.11	.02	-.05
최소화 반응	.04	.13	.06	.05	-.06	-.00

⁺p<.10 *p<.05

어머니의 정서 중심 반응은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r=.19, p<.10$)을, 위축된 행동 및 공격적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각 $r=-.21, p<.05$; $r=-.22, p<.05$)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이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반응할수록 남아는 유치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보였다. 반면, 여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r=-.23, p<.05$)을, 치별적 반응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경계선 수준에서 부적 상관($r=-.21, p<.10$) 및 위축된 행동과 정적 상관($r=.22, p<.05$)을, 정서 중심 반응은 여아의 공격적 행동과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r=-.21, p<.10$)을 보여주었다. 즉, 여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교실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였으며, 벌을 주는 방식으로 반응할수록 여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고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여아에게 어머니가 정서 중심 반응을 보일수록 여아는 교실에서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은 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각각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들의 관계는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되어 있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에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통제했을 경우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지 검증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 상관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통제하였을 경우 달라진다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가정에 의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 아동의 정서성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모두 유의한

〈표 5〉 여아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적률 상관 계수와 부분 상관 계수

사회적 행동	여아의 정서성	
	적률 상관 계수	부분 상관 계수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통제)
위축된 행동	.29*	.17

* $p < .05$

상관을 보이는 행동만을 선정하여,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제하기 전의 적률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아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여아의 정서성 및 위축된 행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아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을 통제하였을 때 여아의 정서성은 위축된 행동과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신의 위축된 행동과 관계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여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유형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이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또한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은 이들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며, 이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과 위축된 행동

간의 관계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를 남겨별로 살펴본 결과, 여아의 정서성이 여아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아가 평소 화를 잘 내거나 잘 운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별 반응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성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를 보여준 Eisenberg 등 (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9)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아동에 대한 어머니 행동 간의 상호작용적 또는 전이적 영향을 제안한 Sameroff(1975)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성은 어머니 보고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는 평정자인 어머니 자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Bates(1989)가 지적한 것과 같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 보고는 타당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남아의 정서성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여, 남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남아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지각보다는 다른 변인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Hill과 Lynch(1983), Shaffer(2000)는 남아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사회화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해 여아보다 더 용인되는 반면,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응적이도록 사회화되고 남아보다 공격적 행동이 더 금기시 된다고

하면서, 부모는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 행동에 대한 다른 사회화 기준을 가지고 반응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로 아동의 정서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여아 어머니 보다 남아 어머니가 더 많은 처벌적 반응과 최소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실제로 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적 특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 신념에 따라 상이한 정서 반응 행동을 보인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선행연구와는 달리 남아의 정서성이 이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성의 관계에 성이 어떠한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여아의 정서성은 위축된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남아의 정서성은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권연희, 2002; Eisenberg et al., 1993; Eisenberg et al., 2000; Fabes et al., 1999; Murphy & Eisenberg, 1996; Rothbart et al., 1994; Rubin et al., 199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위축된 행동의 관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는 평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와의 부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실과 같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또래나 교사에게 위축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여아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련되고,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미성숙하게 종결하게 되고 적절한 피드백이 일어난 가능성이 감소되어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배울 기회를 줄이게 된다(Fabes et al., 1999)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아의 정서성은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화를 잘 내고 잘 우는 것과 같은 남아의 정서적 특성이 유치원에서 또래나 교사와 상호 작용할 때 보이는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아동의 정서성과 이들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제시한 앞서 인용한 연구들의 견해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남아의 정서성은 이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남아의 사회적 행동은 자신들의 정서적 특성보다는 다른 요인 즉,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같은 사회화 요인이나 대인간 문제해결전략과 같은 사회인지적 요인이 관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남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실제로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남아 어머니의 정서 중심 반응은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위축된 행동 및 공격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처벌적 반응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

적 상관 및 위축된 행동과 정적 상관을, 정서 중심 반응은 공격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약간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Eisenberg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9; Eisenberg, Fabes, Carlo et al., 1993; Eisenberg et al., 1996; Garner et al., 1994; Roberts & Strayer, 1987)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Hoffman(1983), Garner 등(1994)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이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이해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비지지적으로 반응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각성을 높이는 부모 행동은 아동이 정서 관련 사건에서 자기 정서를 이해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반면, 지지적인 부모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arner et al., 1994; Hubbard & Coie, 1994)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벌을 받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유치원 교실과 같은 정서를 조절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위축되거나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정서 중심 반응을 보일 경우 아동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유치원과 같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발생과 불안을 증가시키게 되어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 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Buck(1984)의 주장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유형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주로 어머니의 정서 중심 반응이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이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Eisenberg 등(1999)의 연구에서도 여아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이 6-8세 학교에서 낮은 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었고, 부모의 처벌적 반응은 남아의 사회적 기능과 부적 상관을 보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적 기능 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Perry, Perry와 Weiss(1989)는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에 대해 성에 따라 다른 지각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남아는 자신의 분노 표현에 대해 여아보다 부모에게 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보통의 경우 남아는 여아보다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에게 부정적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가 정서 중심 반응과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이러한 반응이 남아의 정서 사회화에 좀 더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및 처벌적 반응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이 여아의 사회적 행동에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 어머니보다 여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 반응을 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아의 사회적 행동에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니는 것은 여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여아에게 중요한 사회화 실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 자신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므로 이 같은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서 성이 어떠한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아의 정서성과 위축된 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여아의 부정적 정서에 처벌적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여아로 하여금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아동의 개인 내,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Rubin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Rubin 등(1998)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 지배 행동을 많이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 유의하다고 하였다. 또한 Rubin, Cheah와 Fox(2001)은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위축된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역조절

성향과 같은 기질적 요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령 전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위축된 행동과 관련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직접적이기 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을 통해 간접적이었다. 즉,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로 하여금 처벌적 반응을 유발하며, 이러한 정서 사회화로 인해 여아는 유치원에서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아의 위축된 행동에 대한 정서성과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의 관계는 여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할 때 이들의 또 다른 사회화 맥락인 어머니-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처벌적 반응과 같은 부적절한 정서 사회화를 하지 않고, 적절한 반응을 많이 보일 경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가 교실에서 위축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머니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실에서 위축된 아동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험한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중상류층 가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부모와 같은 맥락적 특성이 다른 대상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접에서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남아의 경우 이론적 가정을 충분히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든 아동에게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 전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개인 내, 외적 변인으로써 아동의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관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이시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포괄적 탐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연·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 반응 및 또래 수용 간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권연희(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 and sixth grades :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미·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es, J. E.(1989). Concepts of measures of tempera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ew York : Wiley.
- Belsky, J., Fish, M., & Isabella, R.(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uck, R.(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 Guilford.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ohn, L. D.(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Eisenberg, N., &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pp. 57-74). San Francisco : Jossey-Bass.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Speer, A. L., Switzer, G., Karbon, M., & Troyer, D.(1993). The relations of empathy-related emotions and maternal practices to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131-150.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Eisenberg, N., Fabes, R. A., Shep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K.,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ottman, J., Katz, L., & Hooven, C.(1996). *Meta-emotion :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ity :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hwah, NJ : Erlbaum.
- Hill J. P., & Lynch, M. E.(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201-228). NY : Plenum.
- Hoffman, M. L.(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pp. 236-274).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Hyde, J. S.(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so, R., & Frigerio, A.(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ewis, M., & Saarni, C.(1985).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New York : Plenum Press.
- Lytton, H.(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Murphy, B. C., & Eisenberg, N.(1996). Provoked by a peer :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 103-124.
- Parke, R. D.(1994).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3-72.

- mental Psychology*, 26, 683-697.
- Perry, D. G., Perry, L. C., & Weiss, R.(1989). Sex differences in the consequences that children anticipate fo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12-319.
- Raver, C. C., & Zigler, E. F.(1997). Social competence :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oberts, W., & Strayer, J.(1987). Parents' responses to the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15-432.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the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97-115.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Rubin, K. H., Hymel, S., Mills, R. S. L., & Rose-Krasnor, L.(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D. Cicchetti & S. Toth(Eds.), *Th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Vol. 2) :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pp. 91-12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Nelson, L. J., Hastings, P. D., & Asendorff, J.(1999). The transac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 of their children's shyness and their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937-958.
- Sameroff, A.(1975). Early influences on development : Factor or 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21, 263-294.
-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 Wadsworth/Tomson Learning.
- Thompson, R. A.(1994). Emotional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pp. 25-52).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1월 3일 채택